

북동포 돕기 '한마음'

교계 30여단체·한끼줍기·바자회 등...17일 '단일창구' 발족

북한동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것(불교 61.2%, 개신교 72.8%, 가톨릭 78.5%)으로 밝혀진 가운데 30여 신행단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동포 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 동포 돕기 운동 '단일창구'로 '가정' 북동포돕기위원회 준비위원회를 17일 발족시켜 자비단체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각 단체별로 모금법회 바자회 캠페인과 '한주 한끼줍기 운동' 등 북한동포돕기 행사일정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6월 8일까지 2차 육수 수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모금운동을 한다. 또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민)는 17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북한동포

기 운동기간으로 선포하고 1억 모금활동에 나선다.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회도 하안거절제 기간 2천만원 모금을 결의했다. 불교문화원(원장 홍우홍)은 5월3일~7일 조계사 경내에서 생활안락바자회를 연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종교 사회 각계인사들은 지난 12일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각계 인사모임'에서 한주 한끼줍기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40여개 통일운동단체로 구성된 민족회의도 10일 서울역 앞에서 '겨레사랑북동포돕기 발족민족통' 선포식을 갖고 북한 식량난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도광선 기자)



첫 OP 점등... "북녘에 자비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녘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 평화통일기원 OP 연등이 8일 첫 점등됐다. 임진강 건너 북녘방향이 내려다보이는 서부전선 까치봉에서 '우리의 소원'이 합창되는 가운데 불을 밝혔다. (피주=고영배 기자)

"종단개혁 멈출 수 없는 법륜"

이날 석주스님은 "종단의 개혁은 멈출 수 없는 법륜(法輪)과 같다"며 "개혁하고자 하는 이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심(下心)하기를 바란다"고 법어했다.

"종무행정 파행" 성명 9일 종회의원들의 모임

조계종 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광 성문 지인 현 소)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개혁과 관련 '사부대중에 계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종정스님 사회 총무원 집행부 불신 △종단개혁 상실 △직영사할 등 파행적 종무행정 등이 골자다. (관련기사 3면)

불법에 경제침체 해법있다

14면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린 세계적인 성보 사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은 한국의 대표적 불상입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완벽한 조화미의 석굴암의 구조는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탑골 비록굴 부처님 생애 등 40여개의 골짜기와 산줄기로 이루어진 경주 남산은 석불 90여체(體), 석탑 80여기, 115곳의 절터가 있고,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35점에 이르는, 말 그대로 노천박물관입니다. 곳곳에 모셔놓은 부처님과 석탑, 절터들 사이를 걸다보면 여기가 그대로 불국토라고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돌부처님들이 우리 민족의 얼굴을 꼭 닮았는데, 정말 그런지 함께 단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얼굴-석굴암과 남산 부처님

4월 테마여행-석굴암·남산

■ 참가 안내

◇ 출발: 4월 26일(토) 저녁 10시 - 조계사 앞

◇ 안내: 정방국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 회비: 4만원(조식 제공)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입금후 현대불교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5월 25일 대흥사-불주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6월 29일 부석사-한글 목조전축의 아름다움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명구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주)일양약품

이에 앞서 월주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개혁파'의 우려를 경계하되 수용하여 제2의 개혁불사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94년 개혁 당시 범종추소속 10개 단체는 개혁불사의 효를 역행하는 움직임은 간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문화비전 2000' 준비 문체부, 특별운영위 구성

문화체육부는 8일 2천년대의 도래를 1천일 앞둔 시점에서 '문화비전 2000'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계정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4월중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비전 2000'을 상안해 10월20일 문화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비전 2000'은 문화 예술 관광 청소년 체육 등 문화 복지 시설의 확충과 전문문화의 보존 유지 계승 및 우수성을 진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교계와 관련있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개혁은 결국 문화의 발전과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문화도시 및 전통문화마을 조성 및 무형문화재 기법을 세계화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북식량 직접 전달 논의

조계종-조불련 13일 북경서 실무회의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13일 북경 오우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이하 조불련)과 실무회의를 갖고 대북식량 직접 전달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따른 전달방법, 시기, 월주총무원장의 방북문제 등 남북간 불교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조불련은 3일 '월주스님이 제기한 기증문제의 경양방면에 동의한다'며 '4월중 북경에서 실무회의를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자비의 탁발과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남북실무회의에는 총무원장(조계종 사회부장)과 심상현서기장(조선불교도연맹)을 비롯 양측 실무자 각 1인이 참석한다.

봉축 포스터 보급

봉축위원회는 8일부터 아가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사찰과 지방 봉축위원회에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날'에 만난 남강스님

19면

기림카담 - "대장경에 새 생명을"

15면

자비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내뿜처럼 귀하며,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했는가. 생각하면 내 어머니의 입聲이 그러했다. 내가 자란 곳은 관음굴이다. 절은 없어지고 이쁜남 남아 동네아름이 된 곳이다. 마을 뒤 세살고개를 넘으면 학가산 기슭의 덕진굴이다. 어머니는 초파일이면 꼭 나를 데리고 거기 가서 불공을 드렸다. 왜 절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정성들여 마련한 음식을 골짜기 바위 밑에 차려 놓고, 불공을 밝힌 후 두 손을 모아 무엇을 간절히 빌었다. 어린 나는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집안과 가족들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기구일 거라는 딱연한 짐작으로 어머니가 하는데

합희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동행복인

로 따라 했다. 그 곳에는 인근 동네의 많은 사람들도 와서 모두 그렇게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에 있는 예련사와 광흥사를 차례로 들렀다. 돌이 악하셔서 운신이 불편하실 때도 어머니는 법당에만 들면 백발백중을 거느린 분이셨다. 그것이 모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이었다.

어머니는 늘 얼굴이 부스부스하고 소변이 시원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여자는 누구나



김종식

늪우쳐도 갇을길 없으니

그런 증세가 있다며 병이 아니라고 했다. 삶을 따라 고향을 떠난 나는 어머니의 건강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냈다. 그렇던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왔다.

요독증이었다. 평소 신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숨겨 오신 것이었다. 의사는 때를 놓쳐서 어쩔 수 없다며 왜 이렇도록 두었느냐고 했다. 뼈저린 회한이 무슨 소용이라,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깨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경히 걱정을 꺼치 미안하다고 했다.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어머니의 울성이었다. 세상 어느 어머니만큼 다르리마는 내 어머니는 자식사랑에 일관한 삶이었기에 나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서러운 추억이며 회한의 원류가 된 것이다.

어머니가 쓴 회생과 봉사에 조금도 보답 못하고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켜 한 죄스러움이 못내 한이 된다. 합희를 해도 영원히 갇을 길 없을 것 같다.

(유석초등학교 교감·아동문학가협회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신도 등록 및 교무금 납부 안내

신도증! 참다운 불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불자들은 일관된 법문과 교육과 수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찰을 재적 사찰로 정하여 신도등록을 하고 법회 참석, 신도회 활동, 기도 동참 등의 정기적인 수행활동과 지속적인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합니다. 신도등록을 하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재적 사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 비 서 류: 1. 신도등록서 1부 (사찰에 있음)
2. 사진 3매 (칼라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3. 교무금 (성인 10,000원·18세 미만자 5,000원·생활보호대상자 무료)

등록신도에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도의 권리: 1. 관람료 징수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사찰에 등록하여도 다른 사찰에서 자유로이 기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신도등록은 교무금 납부로 완성됩니다.

교무금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활동을 위하여 매년 한 번씩 납부하는 조계종 신도의 성스러운 보시금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모금된 교무금은 재적 사찰의 포교와 신도교육은 물론이고 종단의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작년까지 신도등록을 마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도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등록을 하신 재적 사찰에 본인 신도증을 제시하시고 금년도 교무금 1만원을 납부하신 후 종단 발행 교무금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하여 모든 신도는 금년도 교무금을 6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사찰을 무료 입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표소에서 본인의 신도증과 금년도 교무금 영수증을 동시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2541. 4.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포교원